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다

대구시 투자유치과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사업 광역자치단체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의미 있는 유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시 투자유치과를 만났다.



(위줄) 대구시 투자유치과 조희정·최종태·이재혁·박영하·유종석·곽병훈·윤재철·이충기·정성훈 주무관
(아랫줄) 서성철 투자기획팀장, 김진혁 과장, 김나현 (전)미래산업유치팀장, 강용덕 주력산업유치팀장

투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 지원

최근 청년 인재들이 비수도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기업들도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추세다. 이처럼 수도권에 비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지방에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 투자 기업에 투자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다.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국비와 시비로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유망 기업을 유치해오고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7,035억 원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2,100여 개를 창출했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투자 금액은 15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미래 차 분야에서 1,000억 원 대의 대규모 투자를 두 건이나 성사시키는 등 총 4개 기업, 투자 금액 2,369억 원, 신규 고용 957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을 담당할 대구시 투자유치과는 단순히 투자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과 기업 만족도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대구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특·광역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른 혜택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지원율을 기존 65%에서 70%로 확대할 수 있었다. 투자유치과 서성철 투자기획팀장은 대구시가 지속적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투자유치과는 정부 지원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역대 기업의 확대 투자나 소규모 국내 복귀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장려금과 직원 거주 지원비 도입, 보조금 지원 한도와 민간인 투자 유치 포상금 상향 등 관련 조례·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특·광역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시

세계 시장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대구시는 특히 올해부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5+1 미래신동력산업'에 해당하는 50개 지역 특성화 업종에 1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다. 5+1 미래신동력산업이란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집중 육성 중인 물, 의료, 미래 차, 로봇, 에너지, ICT 융합 산업(스마트 시티)을 말한다. 이에 따라 50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를 최대 34%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에도 미래 신산업 강소기업 4개사를 새롭게 유치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핵심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이들 4개 기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구국가산업단지과 의료R&D지구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등 총 2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규 일자리도 271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들 기업의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대구시 투자유치과는 지금까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총 38개 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의료R&D지구에 총 92개 기업을 유치했다. 대구시에 터를 잡은 미래 신산업 기업은 인력 채용이 원활하고 협력 업체가 많은 대구시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에 대체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대구시의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휴스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기업의 성장과 도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구시 투자유치과 김진혁 과장과 서성철 투자기획팀장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물 산업은 대구시의 '5+1 미래신동력산업'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대구시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설립됐다.)

‘기업하기 더 좋은 대구’를 향해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한 대구시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이에 대구시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우선, 기업 관계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동영상 제작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 소개 영상의 기존 틀을 깨고 익살스러운 콘셉트로 대구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소개한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이 현재 KTX와 대구시정 전광판을 통해 송출 중이다. 또한 리플릿과 상담 안내 책자, 투자 유치 종합 매뉴얼 등을 제작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각종 산업 전시회, 박람회 등과 연계해 상담 부스를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혁 과장은 더 많은 유망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알려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침체된 지역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지방의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기업 친화 도시 대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왼쪽부터) 대구시 투자유치과 서성철 투자기획팀장, 김나현 (전)미래산업유치팀장, 김진혁 과장, 강용덕 주력산업유치팀장

글 전하영 사진 장은주 사진 제공 대구시 투자유치과

대구 근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구 중구에서 근대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대구로 떠나는 시간 여행.



20세기 초 선교사들의 거주지였던 청라언덕

붉은 벽돌과 푸른 담쟁이, 청라언덕

대구 골목투어의 제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구의 역사를 마주하며 시간 여행을 떠나기 좋은 코스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청라언덕에서 2코스 여행을 시작한다. 청라언덕은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담쟁이를 많이 심은 곳이라 하여 푸를 청(靑)에 담쟁이 라(蘿)를 붙여 청라언덕이라 이름 지어졌다. 지명처럼 봄과 여름이면 푸르게 빛나는 담쟁이덩굴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사로잡는다. 푸른 담쟁이덩굴과 붉은 벽돌집이 어우러지며 외지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다.

청라언덕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자리 잡은 시기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1893년부터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뒷길인 이곳은 원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들의 시신이 묻히던 지역이었기에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터를 잡기 수월했다. 당시에는 수많은 선교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챔니스 주택, 스위트 주택, 블레어 주택 총 세 채뿐이다. 모두 100년을 훌쩍 넘은 근대 문화유산이다.

현재 선교박물관으로 쓰이는 스위트 주택은 여성 선교사 마르타 스위트가 살던 곳으로 1910년경 지어졌다. 1907년 대구읍성 철거 때 가져온 안산암의 성도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았다. 붉은 벽돌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갖춘 서양식 주택이지만 지붕은 기와를 얹어 한식과 양식의 조화를 이뤘다. 집 주위에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 가져온 서양 사과나무 3세목과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내는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선교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지금은 1층에 각종 성경 책자와 선교 유물이, 2층엔 성막 모형과 성경 관련 소품들이 전시돼 있다.

스위트 주택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가면 챔니스 주택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이 집은 선교사 챔니스와 계성학교 제2대 교장 레이너 등이 거주하던 집이다. 이곳 역시 대구읍성 철거 때 가져온 성도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이층집을 올렸다. 남북으로 약간 긴 네모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1층의 넓은 베란다가 눈에 띈다. 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 풍으로, 당시 미국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의료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동서양의 여러 의료기기가 전시돼 있다.

또 다른 선교사 주택인 블레어 주택은 커다란 반원형 유리창이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건물 기초와 지하실 부분을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며 1층에는 넓은 베란다가 현관과 이어져 있다. 2층의 반원형 유리창이 있는 공간은 선룸(sunroom)으로 자연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당시 미국의 주택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지금은 교육역사박물관으로 근대교육과 관련된 자료, 대구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선교박물관

주소

대구 중구 달성로 56

운영 시간

월~금 10:00~12:30, 13:30~17:00, 토요일 10:00~12:3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청라언덕에 남아 있는 건물은 모두 100년을 훌쩍 넘은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날의 역사, 3.1만세운동길과 계산성당

청라언덕과 대구 제일교회 사잇길은 1919년 만세 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학생들이 일제의 눈을 피하던 비밀 통로로 쓰였다. 원래 소나무 숲으로 울창한 솔밭길로, 대구 3.1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몸을 숨길 수 있다. 지금은 계단 길로 바뀌었으며 90개 계단 옆으로 20세기 초반 대구의 모습과 3.1만세운동 당시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계단을 내려가며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날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내려오면 맞은편에 위치한 계산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뚝 솟은 두 개의 첨탑이 장엄함을 전한다. 원래는 한국 건축 양식을 가미한 십자형 성당이 있던 곳이지만 화재로 소실되면서 1902년에 다시 지은 건축물이다. 고딕 양식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특징으로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을 쌓아 올렸으며 정면 중앙 박공 부분에 위치한 원형의 장미창과 건물 좌우측의 창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몇 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는 대구 가톨릭을 대표하는 주교좌성당으로 쓰이고 있다.

*계산성당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0



근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3.1만세운동길과 계산성당

***추천 맛집_근대골목단팥빵**

시간 여행에는 추억의 음식이 제격이다. 옛 단팥빵의 맛을 재현한 근대골목단팥빵은 대구 동성로에 본점이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구 대표 빵집 중 하나다.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맛을 자랑한다. 직접 끓인 수제 단팥과 천연버터, 천연발효종을 숙성해 만든 수제 빵으로, 인기 제품인 생크림 단팥빵은 뽕뽕하게 채워 넣은 생크림과 고소한 단팥, 호두가 어우러져 달콤하고 부드럽게 입안에 녹아든다. 수제 단팥을 듬뿍 넣은 팔빙수도 별미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7-1 1층 근대골목단팥빵

영업시간 매일 09:00~21:00

메뉴 단팥빵 2000원, 생크림단팥빵 3000원

문의 053-423-1883



옛 단팥빵의 맛을 재현한 근대골목단팥빵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계산동 근대골목

계산성당이 있는 계산동은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이 벌어지던 역사의 현장이자 문인, 화가, 음악인들로 붐비던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민족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상화 시인 역시 계산동에서 말년을 보내며 문학 활동과 독립운동에 몰두했다. 계산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상화 고택은 시인이 1939년부터 작고하던 1943년까지 머문 곳이다. 한때는 도심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1999년 대구고택보존시민운동에 의해 건물이 보존됐으며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1년간 보수공사를 마치고 2008년 8월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일자형의 한옥 목조주택 2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택보존시민운동본부에서 모금한 재원으로 고택 내 전시물을 설치했다. 이상화 시인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에 저항하던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1919년 3.1운동 시위 행사 준비에도 참여했으며 1921년 잡지 <백조>의 동인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그의 대표 작품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나라를 빼앗긴 허무함과 조국에 대한 애정,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노래한 시로 민족정신과 저항의식을 고취시킨다.

이상화 고택 맞은편에는 조선 말기 민족운동가 서상돈의 고택이 자리해 있다. 서상돈 고택 역시 이상화 고택과 함께 2008년 현재 위치로 이전복원 됐으며 대구의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인이기도 했던 서상돈은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간부로도 활동하며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민권보장과 참정권 획득 등 국권 수호에 앞장선 인물이다. 특히 1907년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일제의 경제 및 국권침탈에 저항하여 국민들을 각성시키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상화 고택에 이웃해 있는 계산예가는 근대문화체험관으로 대구 도심의 과거와 현재를 여러 사진과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대구 근대 예술인들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대구가 지닌 문화의 근원과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화 고택

주소 대구 중구 서성로 6-1

개방시간 매일 10:00~18:00(명절 당일 휴관)

*서상돈 고택

주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개방시간 매일 10:00~18:00(명절 당일 휴관)



당시 문화예술인들로 붐비던 계산동

시간이 멈춘 골목, 진골목

근대골목을 나와 뽕나무 골목으로 들어서면 알싸한 한약재 향이 코를 스친다. 대구 전통시장인 약령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거쳐 셋길로 빠지면 다시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진골목이다. '길다'의 경상도 사투리 '질다'라는 뜻을 지닌 진골목은 조선시대부터 대구 유지들이 살던 부유한 지역으로, 대구 토박이 달성서씨의 부자 서병국을 비롯해 기업가와 정치인 등이 살던 골목으로 유명하다. 세월이 흐르고 부자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으리으리한 저택들은 식당이나 병원 등으로 바뀌었다. '길다'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지금은 100m 남짓 되지 않는 짧은 골목길이 되었지만 골목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오래된 찻집이 교차해 있다. 그중 40년 가까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곳이 미도다방이다. 정치인과 문인들이 찾던 미도다방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하며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트로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옛날 다방을 경험해보기 위해 미도다방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찻집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쌍화차를 마시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정답다.

미도다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붉은 글씨로 '정소아과'라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정소아과는 1937년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주택으로 대구 갑부 서병직의 저택이었다. 1947년 정필수 원장이 매입해 60여 년간 병원 건물로 쓰였다. 기존 주택을 거의 고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일제강점기 상류층의 주거문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대구를 배경으로 하는 김원일의 장편소설 <마당 깊은 집>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구 사람들이 자주 찾던 병원이었다. 지금은 근대 역사문화 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도다방

주소 대구 중구 진골목길 14

영업시간 매일 09:30~22:00 (명절 당일 휴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진골목

***추천 맛집_중화반점**

대구하면 막창이나 육개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음식은 다르다. 대구 사람들이 꼽는 별미는 바로 야끼우동이다. 대구십미(十味)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중국 볶음면인 차오미엔을 대구식으로 매콤하게 변형한 것인데, 볶음짬뽕과 달리 국물이 자작하다. 1970년대부터 야끼우동을 선보인 대구 중화반점은 푸짐한 양과 중독성 있는 맛으로 대구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커다란 접시에 해산물과 채소 등 갖은 재료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져 나온다. 단골들은 여기에 탕수육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라고 말한다. 새콤달콤한 탕수육이 매콤한 야끼우동이 ‘맵단맵단’을 완성한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6-12

영업시간 매일 11:30~21:00 (브레이크타임 평일 16:00~17:30, 주말 15:30~16:30)

문의 053-425-6839

메뉴 야끼우동 10,000원, 탕수육 17,000원, 새우볶음밥 8,500원, 짜장면 6,000원



대구의 별미 야끼우동으로 유명한 중화반점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선명하게 찍어낸 아날로그 감성

실크스크린(공판화) 체험

직접 그린 그림을 다양한 곳에 옮겨 찍어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보고자 판화 공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구 인쇄골목의 한 판화 작업실에서 매력적인 실크스크린 기법을 배워보았다.



팝아트의 거장이 사랑한 작업법

다양한 색으로 찍어낸 마릴린 먼로, 똑같이 보이지만 조금씩 모두 다른 캠벨 수프 등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앤디 워홀의 대표작들은 모두 '실크스크린'이란 판화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이다. 실크스크린은 스크린 판의 미세한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내 찍는 기법을 말한다. 앤디 워홀의 작품들처럼 대담하고 선명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고,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점이 실크스크린의 특징이다. 또한, 종이와 패브릭, 플라스틱, 목재, 금속판 등 다양한 재료에 프린팅할 수 있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티셔츠, 에코백, 파우치 등 나만의 굿즈를 소량 제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실크스크린 클래스를 찾아온다.

원데이 클래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실크스크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실크스크린에 사용하는 감광액은 수용성이면서 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어 불수용성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감광액을 판 표면에 바른 뒤 검은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투명한 필름을 판에 겹쳐 빛에 노출하면 빛을 받지 못한 그림 부분만 물에 녹아 구멍이 뚫리는 것이 실크스크린의 제판 원리다. 제판 과정은 제법 손이 많이 가지만 다른 판화 기법들보다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초보자도 금방 따라 할 수 있다.



빛과 물이 함께 만든 마법

실크스크린의 첫 단계는 도안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투명한 OHP 필름이나 트레싱지 위에 진한 색 펜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된다. 공방에 마련된 여러 샘플 도안 중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대구 근대건축의 상징 중 하나인 계산성당의 이미지를 찍은 에코백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림이 준비되면 틀에 씌운 실크샤에 감광액을 발라준 후 감광기 앞으로 이동한다. 빛을 쬐주는 기계인 감광기 위에 그림을 먼저 올린 뒤 감광액이 아직 굳지 않은 실크틀을 그 위에 얹어준다. 다음은 감광기의 진공압착 기능으로 그림과 실크샤를 밀착시킨 후 2분 30초간 노광을 한다. 이때 감광기마다 적절한 노광 시간은 각각 다르다.

노광이 끝나면 실크틀을 꺼내 샤워기로 골고루 씻어내는 단계다. 한참 물을 뿌려주다 보면 판 위에 서서히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광기 안에서 빛을 받은 여백 부분은 모두 굳고 그림 부분만 빛을 받지 않아 물에 녹은 것. 그림이 완전히 드러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꼼꼼히 말려준다. 이제 복잡한 준비 과정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섬세한 감각으로 찰나에 찍어내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찍기 전에 실크샤와 틀 사이로 잉크가 새지 않도록 모든 테두리에 꼼꼼하게 테이핑을 해줘야 한다. 실크스크린은 여러 색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간단히 한 가지 색을 사용한다. 직접 잉크를 조색해 계산성당의 붉은 벽돌과 비슷한 초콜릿 색을 만들었다. 다음은 잉킹대에 실크틀을 고정하고 에코백 놓을 위치를 잡아준 후 연습 삼아 종이에 먼저 찍어보기로 했다.

실크샤 윗부분에 적당량의 잉크를 붓고, 고무 날이 달린 스퀴지를 45도로 눕혀 손에 힘을 살짝 준 채로 가볍게 누르며 밀어준다. 너무 세게 눌러 스퀴지의 날이 높게 되면 선이 실제보다 굵게 찍혀 나오게 되고, 힘이 덜 들어가면 선명하게 찍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정 각도를 유지하는 섬세한 힘 조절이 관건이다. 여러 번 연습을 통해 금방 손에 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 형태는 같지만 매번 선이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게 찍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굿즈가 내 손에서 눈 깜짝할 새 인쇄되어 나온다.



[한눈에 보는 실크스크린 제작 과정]

- ① 빛이 통과되는 트레싱지나 OHP 필름 위에 도안을 그린다.
- ② 실크샤를 틀에 씌운 후 암실에서 감광액을 얇게 발라 말려준다.
- ③ 감광기 위에 도안을 올리고 그 위에 실크틀을 얹는다.
- ④ 진공압착으로 필름과 실크샤를 밀착시킨 후 노광한다.
- ⑤ 노광이 끝나면 재빨리 샤워기로 판면 전체를 씻어준다.
- ⑥ 필름의 검은 부분이 뚫려 그림이 나타나면 물기를 닦고 말려준다.
- ⑦ 실크샤와 틀 사이 테두리를 꼼꼼히 테이핑한다.
- ⑧ 잉킹대에 실크틀을 고정하고 종이(에코백) 놓을 위치를 표시한다.
- ⑨ 원하는 색을 조색한 후 샤에 적당량의 잉크를 붓는다.
- ⑩ 스quee지를 적당한 힘으로 눌러 밀면서 잉크를 먹여 이미지를 찍어낸다.



Mini Interview

초보자도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실크스크린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작업을 위한 모든 장비와 재료는 공방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원데이 클래스에 오실 때는 도안만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팁이 있다면, 굵은 선으로 된 이미지나 면이 큼직한 이미지를 선택해야 색이 선명하게 잘 찍혀 나옵니다. 나만의 그림이 담긴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거나 소량의 굿즈를 인쇄하고 싶은 분들은 실크스크린 공방을 찾아주세요.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 프린트그라운드 김민주(이이영) 작가

글 전하영 사진 장은주

마을 폐교의 정다운 변신

‘국민학교’로 떠나는 레트로 여행

이제는 ‘초등학교’란 명칭이 더 익숙하지만, ‘국민학교’는 많은 이의 유년 시절이 농축된 소중한 타임캡슐이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던 그 시절,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는 늘 국민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의 변화로 외진 시골 마을이나 공동화된 도심에서 3,800여 개의 국민학교는 역할을 잃었다. 그랬던 국민학교가 요즘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추억의 국민학교로 다시 등교해보자.

종이와 활자, 책의 은하계로 떠나는 모험
책마을 해리



2001년 폐교한 고창 해리국민학교 나성분교를 리모델링한 ‘책마을 해리’는 출판물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조부가 설립해 기증한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 이대건 씨가 인수해 낡은 교실을 한 칸 한 칸 고치며 2012년 버들눈도서관을 열고 책공방, 한지공방, 활자공방, 책숲, 마을책방, 갤러리, 트리하우스 등을 더해왔다.

책마을 해리는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모토 아래 운영하고 있다. 지역 생태 인문 자원을 체험하고 출판하는 출판캠프, 하룻밤 책을 읽고 이야기를 실컷 나누는 북스테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는 책감옥, 청소년 함께 쓰기 캠프를 통한 청소년서적 출판, 미디어학교, 통통세프, 인문건축학교, 인문철학교, 예술학교 등의 프로그램 등이 모토를 충실히 구현하는 증거다. 농한기에는 매주 한 번씩 책마을 인근 ‘아침들’과 함께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내는 ‘밭매다땀짓거리’를 진행하고, <마을신문 해리>를 발간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소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시골 폐교가 첨단 교육 거점으로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올해 개관한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은 여태까지의 폐교 활용 사례와는 사뭇 다르다. 전국 대부분의 폐교가 매각, 임대, 혹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락은 관리 주체인 경남 고성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섰다. 1946년 개교해 1999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삼락국민학교를 21억여 원을 들여 최신 교육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삼락(三樂)은 옛 학교명이기도 하지만 상상의 기쁨, 도전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뜻하기도 한다. 2층 규모의 센터에는 드론 교육장을 비롯해 발명메이커실, 피지컬컴퓨팅실, 아이디어실, 창의목공실, 첨단목공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기반의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폐교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소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325

다시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어음분교 1963



1963년 개교한 제주 어음분교는 애월에서도 가장 고지대에 속한 곳으로 마을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999년 폐교된 후 마을 주민들의 숙제가 되었다. 20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던 이곳을 새로운 명소로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뜻이 모여 2019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농어촌공사의 지원 아래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거듭났다. 교무실은 카페로 개조해 다양한 메뉴의 음료를 맛볼 수 있고, 교실은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와 가족실로 꾸몄다. 5,250㎡(1,600평)의 넓은 잔디밭에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놀이기구를 비치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놀이터다. 군데군데 졸업 사진과 추억의 간식, 교복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학교 졸업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으나, 어음2리마을회는 재투자를 통해 포토 존 등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허브 족욕 체험, 허브 마스크팩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지난 1년간 다녀간 사람이 1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다.

주소 제주도 애월읍 어림비로 376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작품이 된다
아미미술관



충남 아미산 자락에 위치한 '아미미술관'은 SNS상에서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이다. 1967년 개교해서 1993년 폐교된 유동국민학교를 1994년 박기호·구현숙 작가 부부가 임대해 작업실로 쓰다가 2011년부터 사립 미술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총 1만5,430㎡(4,667평)의 넓은 부지에 야외 전시장과 복합 문화 공간 '메종드아미'를 비롯해 메인 전시관 3관과 상설 전시장 3관을 갖추고 있다.

아미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프로그램을 떠나 미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지역의 건축, 문화, 풍속, 생활상 등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개방하는 생태 미술관을 지향한다. 현재 <추상의 경계>(1~3관),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4~5관), <미술상회>(메종드아미) 등 3개의 전시를 진행 중이다.

주소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3학년 2반의 감동 수업은 계속된다
덕포진교육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은 폐교를 재활용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와 옛 교실의 모습을 생생히 만날 수 있는 교육 박물관이다. 총 3층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교육사료실, 근대생활사유물실, 농경문화전시실 등에 설립자가 직접 수집한 교육 관련 사료 1,000여 점 이상을 빼곡하게 전시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수도권 변두리인 이곳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설립자 부부의 애뜻한 사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학교 교사이던 아내 이인숙 씨가 교통사고로 실명해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자, 동료 교사이자 남편인 김동선 씨가 상심한 아내를 위해 사재를 털어 1996년 박물관을 건립했다. 1층에는 아내가 퇴직할 당시의 3학년 2반 교실을 재현해 아내를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이인숙 씨는 이곳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품계에 앉아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김동선 씨는 강화도와 덕포진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전국에 옛날 교실을 재현한 곳은 몇 군데 되지만, 정식 교사가 진행하는 옛날 국민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덕포진교육박물관뿐이다. 인근 신미양요·병인양요 격전지를 둘러보며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근현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흐름을 되새겨볼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다.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로103번길 90

글 이정훈 사진 제공 고성교육지원청, 책마을 해리, 어음분교 1963, 아미미술관, 덕포진교육박물관

기르는 재미, 수확하는 기쁨 우리 집 베란다 텃밭 가꾸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 생산적이고도 힐링이 되는 취미를 찾고 있다면 실내 텃밭 가꾸기를 추천한다. 별이 드는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손수 기른 채소를 밥상에 올리는 뿌듯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작은 텃밭이 주는 치유

집안 한편에 나만의 작은 텃밭을 꾸며 소소한 재배의 기쁨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베란다 텃밭, 혹은 실내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여가나 먹거리 생산의 의미를 넘어 도시인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한 취미로 각광받는다. 전국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실내 텃밭 취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부모와 유아·아동 자녀가 함께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9.9%p 낮아지고, 자녀의 공감 수준은 4.1%p 높아졌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와 학습의 기능까지 갖춘 실내 텃밭 가꾸기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재배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시민·구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상자 텃밭 분양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텃밭 상자와 배양토, 모종, 설명서 등이 포함된 상자 텃밭 세트를 무상 혹은 1만 원 정도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착순 분양한다. 상자 텃밭 분양 기회를 놓쳤더라도 인터넷에 '텃밭 세트'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의 미니 텃밭 키트를 구입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퇴근 후, 작지만 확실한 수확

최근에는 비싼 채소 값을 아껴보고자 직접 재배를 시작한 이들도 적지 않다. 대파 값이 폭등했던 올해 초에는 ‘대파를 직접 키워 먹으면 돈을 번다’는 의미의 ‘파테크(파+재테크)’가 유행하기도 했다. 일명 파테크족들은 화분이나 물에 소량의 파를 키워 먹는 것을 ‘단기투자’, 텃밭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많은 양을 재배하는 것을 ‘장기투자’라 부르며 서로 재배 팁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파는 키우기도 간단하고, 원하는 만큼 잘라서 먹은 후 물을 주면 새순이 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파테크를 시작할 수 있다. 약 10cm 정도 길이로 대파 밑동을 잘라 배양토나 물이 담긴 재배 용기에 옮겨심기만 하면 된다. 배양토에 심은 파는 이틀에 한 번 물을 주고, 물에 심은 파는 매일 물을 갈아주며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기른다. 3주 정도 지나면 새순이 올라온 부분을 잘라 먹을 수 있다.

대파 외에도 상추, 깻잎, 허브, 적겨자 등의 잎채소들은 첫 수확 후에도 금방 다시 자라나 반복해서 수확할 수 있다. 잎채소는 보통 모종을 심은 후 2~3주 후부터 여름에는 2~3일 간격으로,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다음 수확을 위해 가장 안쪽의 잎 2~3장은 남겨놓는 것이 좋다. 잎이 지나치게 무성해지면 통풍이 어려워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자랐을 때 수확해주도록 한다.

좀 더 빠른 수확을 원한다면 씨앗보다는 모종을 심는 것이 좋다. 씨앗은 싹이 트며 어린잎 채소를 숙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싹 틈우기가 쉽지 않고 모종보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텃밭 초보자라면 실패 확률이 적은 모종으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베란다 텃밭 시작하기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려면 우선 우리 집 베란과의 방향에 따라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을 골라야 한다. 해가 잘 드는 남향의 베란다라면 시금치, 상추, 열무, 케일, 방울토마토, 겨자채 등을 추천한다. 빛의 양이 중간 정도인 동·서향에서는 쑥갓이나 청경채, 참나물 등이 좋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치커리, 아욱, 미나리, 부추, 쪽파 등이 적합하다. 베란다가 없다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가 쪽에 텃밭을 조성하도록 하자.

계절 별로도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에는 상추, 청경채 등 잎채소나 당근, 적환무 등이 좋고, 여름에는 더위에 강한 치커리, 근대, 엔다이브 등을 추천한다. 케일과 다채, 부추, 쪽파 등은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다.

작물을 골랐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흙이다. 바깥의 흙을 그냥 퍼올 경우 잡초종자와 벌레가 함께 옮겨질 수 있고 물 빠짐이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묘사나 마트 등에서 유기물이 포함된 원예용 상토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원예용 상토는 한 달 정도 양분이 지속되며, 추가로 양분을 공급해줄 때는 적정량을 지키도록 한다.

물을 줄 때는 작물의 생육 상태와 상토의 마른 정도를 보면서 줘야 한다. 상토의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물 빠짐 구멍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까지만 주는 것이 좋다.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는 해충이 생기기 쉬우므로 충분히 환기해주는 것도 잊지 말자.



텃밭 초보자를 위한 팁

- 씨앗보다는 모종을 심어야 금방 수확할 수 있다.
- 초보자라면 기르기 쉬운 상추, 깻잎, 바질 등 잎채소로 시작해보자.
-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등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어려운 작물이다.
- 베란다는 방향(빛의 양)과 계절 등을 고려해 작물을 선택한다.
- 흙은 양분이 포함된 원예용 상토를 구입한다.
- 상토의 마른 정도를 살펴 물을 주며, 충분히 환기해준다.

글 전하영

요코하마시, 대학-지역사회의 새로운 역할 전환을 꾀하다

대학은 지역의 대규모 토지와 각종 시설, 고급 인적자원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의 이러한 이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잠재력과 가치는 무궁무진하지만, 때때로 이들의 파트너십은 역할과 효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체 간 불신과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학의 협력 사례를 통해 대학-지역사회의 성공적 파트너십 실현 방안에 대해 엿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를 참여의 장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일본은 대학-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일찍 경험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은 실제로 각 지자체의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내각관방 도시재생본부의 대학-지역사회 연계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법 개정으로 대학의 지역 공헌 의무 법제화, 문부과학성의 지역 거점 대학 형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협력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요코하마시는 다양한 참여자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지속적 시너지 효과와 협력적 이점을 확보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요코하마시는 지역 내 대학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나서 이사장, 총장, 학장 등 대학의 주요 구성원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되었고, 현재 요코하마시립 대학을 포함해 2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대표자 간 만남 외에도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실무 담당자 회의 역시 상시 개최하는 등 원활한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자원으로 시민의 힘과 창조력을 강조한다. 특히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역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라 믿는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요코하마시 정책국 대학조정과’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이자 요코하마시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사업 진행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다. 이 조직은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와 함께 요코하마시 지역에 관한 연구, 각종 시설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봉사 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에 각 지역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요코하마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요코하마 대학 축제, 대학의 지역 공헌 활동 전시회, 유학생 취업 촉진 프로그램 등 대학-지역사회의 공생형 사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의 폭넓은 혜택이 깔려 있다.



©요코하마시립대학

공동 목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에 본부를 둔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 육성,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 추진, 지식·인적자원의 지역사회 활용 등 요코하마시 지역 공헌의 매우 적극적인 주체다. 지역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 활동은 반드시 지역민의 신뢰로 돌아오고, 이는 결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지역의 요구와 현장 자원을 대학이 직접 연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역공헌센터를 설립했다.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진이 지자체, 지역 기업, 시민 단체와 협력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이나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시민의 삶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오픈 강의, 초·중·고등 학생을 위한 체험 세미나, 직장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시민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민의 반응이 매우 좋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산업에 기술 이전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요코하마시립대학 강의실과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등도 지역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거나 무료로 개방해 편의를 제공한다.

요코하마시립대학은 학생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지역 기관 간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모든 주체가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 그뿐 아니라 의과대학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보건, 간호, 복지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한다. 결국 학생,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의 목표 아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요코하마시립대학

공동체적 가치 형성으로 협력 지속 가능성 모색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는 대학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이끌어 진정한 시민 참여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생산하며 교류하는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학-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협력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지(知)’와 ‘지(地)’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사회가 형성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규

몇 해 전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오명까지 얻은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철저히 안전 법규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현행법과 사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알아본다.



2021년, 개인형 이동 장치 주의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라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전동 킥보드다.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표현을 최초로 정의한 것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으나, 이용자 수와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21년 5월 13일 법령을 개정해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기에 만 16세 미만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또한 일정 속도를 내고 주행하는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은 금지되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도 모두 범칙금 대상이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 운전 범칙금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 운행에 관한 여러 의무 사항이 강화됐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함께 탑승하는 행위는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등화 장치 미작동이나 과로·약물 운전 역시 각각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행 중인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증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장 범위에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아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분쟁에 대비해 사고 유형과 그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당사자는 이를 참고해 구체적 과실 비율 및 그에 따른 배상액을 따져볼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형사상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에 해당한다. 만약 운전자가 단순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과 상용화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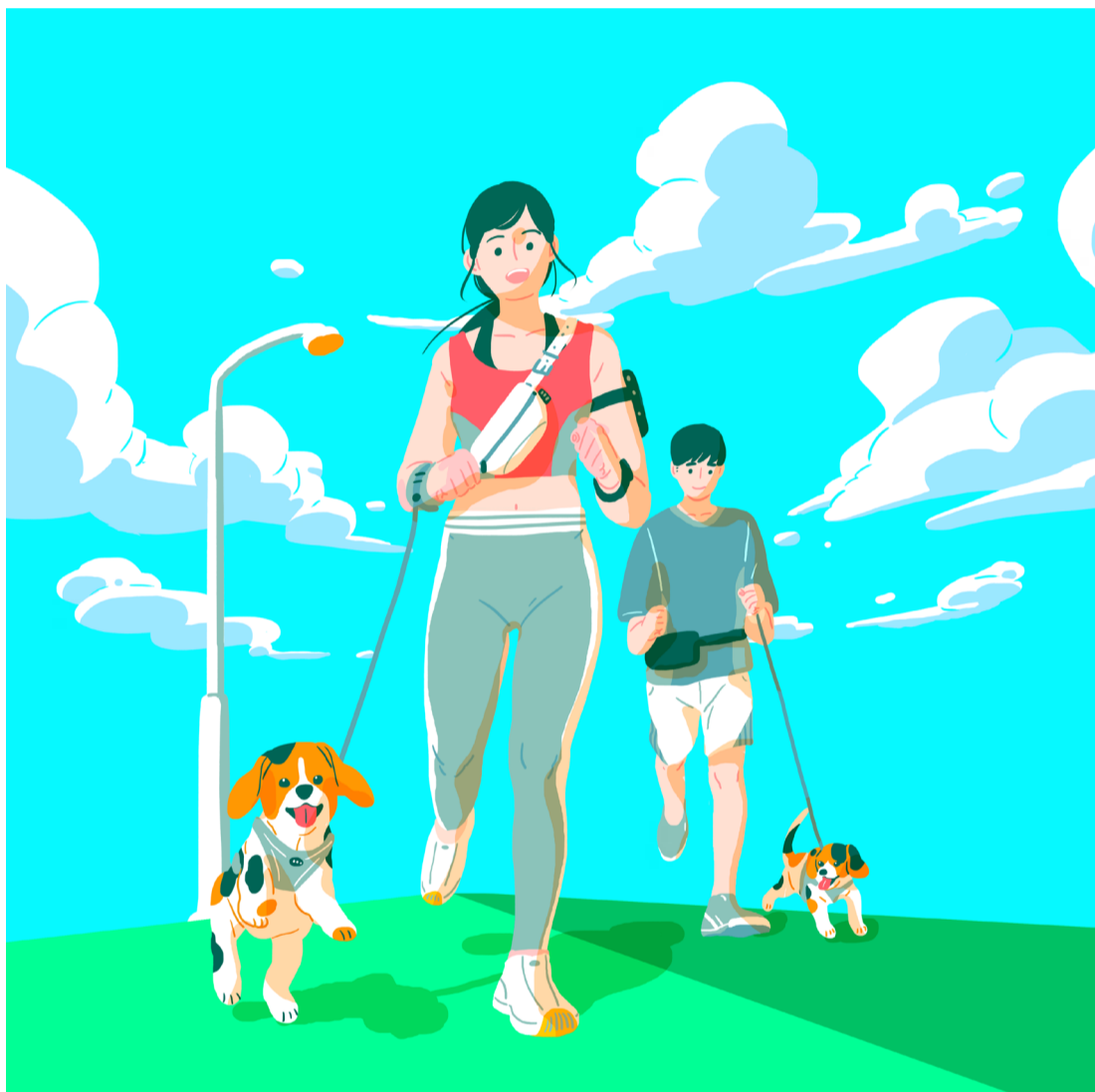
전동 킥보드를 실제로 처음 이용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당황할 수 있다. 이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안전 규칙을 숙지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시속 25km 이하의 것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속도제한을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인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정책, 보험 상품 등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전동 킥보드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걷는 것이 힘이다!

매일 제대로, 즐겁게 걷기

걷기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 중 하나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더 즐겁게 걷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왜 걸어야 하나요?

일찍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라 했다. 2021년, 현대의 전문가들도 여전히 “걷기는 몸과 뇌,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 입을 모아 말한다. 가장 단순한 운동인 ‘걷기’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꾸준한 걷기는 심폐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하고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의 위험을 낮추며 뼈의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면역력 증진은 물론,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치매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 등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없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달리기 등 다른 운동이 힘든 사람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걷기는 얼마든 가능하다.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출퇴근 길 등 일상의 루트를 활용해 걷기를 실천할 수 있다.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인(만 18~64세)의 경우 건강증진을 위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혹은 1주일에 75분 이상 매우 빠르게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고려해 권장 시간 만큼 걸으면 된다. 보통 1분에 약 100보(4.3km/h)를 걸으면 빠르게 걷기에 해당하고, 1분에 약 160보(7.2km/h)를 걸으면 매우 빠르게 걷기에 해당한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산책하듯 천천히 걷다 점차 운동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연령대에 따른 적정 걷기 방법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청소년은 1분에 80m 정도 이동하는 '속보'를 통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속보를 할 때는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목, 어깨,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지점을 바라보며 걷는다. 바쁜 20~30대는 틈나는 대로 '파워 워킹'을 실시해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자.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m를 뺀 정도가 적당하며, 1분에 90m 정도 이동하는 속도로 걸으면 된다.

중장년층은 1분에 100~110m 이동하는 속도로 급하게 걷는 '급보'를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단, 빠르게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천천히 걷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몸 상태를 맞춰가야 한다. 보행이 불편한 노년층이라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자. 썰매를 탈 때처럼 스틱으로 땅을 밀어내듯 걷는 것을 말한다. 양쪽의 지팡이로 체중이 분산돼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한걸 수월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보행 장애가 없더라도 노르딕 워킹을 실행하면 상반신의 운동량이 많아져 짧은 시간에 더 밀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바르지 않은 걸음걸이는 오히려 신체에 통증을 유발하고 체형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걸을 때 시선은 10~15m 전방을 향하고, 두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쥔 채 구부린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든다. 이때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기며 걸으면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등은 곧게 세우고 어깨와 가슴을 바르게 편다. 머리끝을 하늘 위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쭉 늘리고 걸으면 된다. 다리는 무릎 사이가 살짝 스치도록 11자를 유지하며 걷고, 엉덩이는 심하게 흔들지 않도록 한다.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싣는다. 걷는 동안 호흡은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준다.

걷기 전후에는 가벼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올려주며, 걷기를 끝낼 때는 서서히 속도를 늦춰준다. 장시간 걸을 때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신발은 걷기 편한 운동화나 워킹화를 신는다.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적당히 걷는 것이 좋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걷기 시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자. 마스크 착용 시 평소보다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걷기 속도와 양 등을 조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즐거운 걷기’를 위한 앱



두루누비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걷기 여행길 길라잡이 앱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걷기 길을 지역별, 테마별로 소개한다. 걷기 길과 별도로 전국의 자전거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거리와 소요 시간, 난이도를 함께 표시해 더욱 유용하다.



워크온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걷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앱. 우리 동네 챌린지에 참여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동네 상점의 다양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걸음을 모아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이 전달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걷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걷기 여행길 길라잡이 앱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걷기 길을 지역별, 테마별로 소개한다. 걷기 길과 별도로 전국의 자전거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거리와 소요 시간, 난이도를 함께 표시해 더욱 유용하다.



캐시워크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걷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앱. 우리 동네 챌린지에 참여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동네 상점의 다양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걸음을 모아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이 전달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글 전하영

참고 자료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도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외

공간과 장소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를 둘러싼 장소, 공간에 관한 다양한 사유와 성찰을 담은 작품들을 모아 봤다.



“기획조정실 이성훈 실장 추천 도서”

<공간의 미래>

행정공제회 기획조정실 이성훈 실장이 추천하는 유현준 건축가의 저서 <공간의 미래>는 우리 생활 주변 공간들의 가까운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다. 코로나19는 도시의 생활 방식과 사람 간의 관계 등 많은 부분에 가파른 변화를 가져왔다. ‘모여야 살 수 있던 인간 사회’는 ‘모이면 위험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저자는 “도시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 근거들을 설명한다. <공간의 미래>는 단순히 공간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건축가의 관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학교 건물의 변화를 설명하며 교육의 미래를 제안하고, 주거 공간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야기 끝에 저자는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든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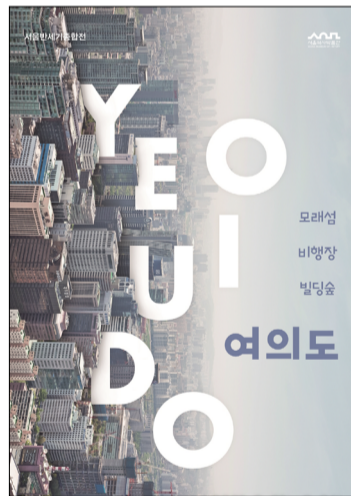
유현준 | 엘유문화사 | 2021.4.25.



**‘공간’에서 ‘장소’로
전시 <CIRCLES IN A CIRCLE>**

인문지리학의 대가 ‘이-푸 투안’은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로 발전한다”고 했다. 쓰레기 조각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부천아트센터B39가 ‘공간’을 넘어 개개인의 경험과 의미로 가득 찬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B39라는 하나의 우주 공간에 작가들의 또 다른 우주를 구현한 <CIRCLES IN A CIRCLE>展이다. 양정욱, 오탈원, 진달래&박우혁 작가가 공간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으로 다양한 설치미술 및 영상 작품을 구현해냈다. 관람객들은 작품이 모여 있는 우주 안을 자유롭게 거닐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부천아트센터B39 | 2021.7.26.~9.26.



**서울의 지난한 역사를 끌어안은 섬
전시 <모래섬,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

한강 하류, 조선 시대에는 뽕나무 재배지이자 목축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쓰이다 1960년 이후 서울의 정치와 금융 중심지로 부상한 거대한 섬이 있다. 전시 <모래섬, 비행장, 빌딩숲 여의도>는 서울의 역사와 함께 변화를 거듭해온 여의도의 시대별 모습과 의미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의도를 촬영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진 1884년도의 사진도 공개됐다. 한때는 국군의 날 행사나 반공대회 등 관제 행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이산가족을 찾는 울음으로, 때로는 열띤 선거 유세의 함성으로 채워지기도 했던 서울의 섬.

모래섬에서 빌딩숲이 되기까지, 여의도의 100년사를 새로이 들여다본다.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2021.5.21.~9.26.



건축에 관한 흥미로운 성찰

<그를 만나면 그곳이 특별해진다>

일명 ‘도발하는 건축’을 표방하는 건축가 조진만이 특별한 공간, 사랑받는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건축을 ‘관계를 만들고 사회를 형성하는 틀’로 바라봤다. 더불어 건축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고민이 무엇인지 제안한다. “기술적이거나 예술적인 ‘건축술’보다는 ‘건축에 대한 사유’에 방점을 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직접 진행한 서울 공공건축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계속될 때 흥미롭고 의미 있는 건축과 공간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 말한다.

조진만 | 쌤앤파커스 | 2021.7.15.

도시 안의 새로운 창조 도시

호텔인터시티

대전을 대표하는 중부권 최초의 4성 호텔 '호텔인터시티'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높은 가성비와 고객 중심 경영으로 편안한 휴식과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복지시설 호텔인터시티를 소개한다.



중부 지역 대표 호텔의 명성을 이어가다

언택트 시대의 호텔은 단순히 여행이나 출장 시 이용하는 숙박 시설을 넘어 또 다른 집이자 일상을 탈피할 수 있는 곳, 혹은 사무 공간 등으로 여긴다.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휴가 방식인 호캉스(hotel + vacance)는 해마다 수요가 늘고 있으며, 재택근무 보편화로 호텔에서 장기 숙박하며 원격 근무하는 사람도 등장했다. 이처럼 호텔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기존 호텔들의 변화도 눈에 띈다. 대전 유성온천지구에 위치한 호텔인터시티는 '도시 안의 새로운 창조 도시'라는 모토 아래 차별화된 서비스와 편안한 휴식 시설, 고객 중심 경영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중부 지역 대표 호텔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텔이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호텔의 가치를 만들고자 고객 중심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는 등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99년 7월 행정공제회 회원 복지 및 수익 시설로 문을 연 호텔인터시티는 개관 당시 1급으로 시작해 2001년 특급 호텔(특2급)로 발전했으며, 2017년 새로운 호텔등급심사에서 중부권 최초로 4성 호텔 인증을 받았다. 호텔인터시티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단정하고 실용적으로 구성된 프리미어 룸부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 패밀리 룸과 스위트 트리플 룸,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어 스위트 룸 등 고객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 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구비했다. 이 외에 세미나, 결혼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12개의 연회 홀도 마련했다. 조식 뷔페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식부터 양식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호텔 내 온천 사우나도 호텔인터시티의 자랑이다. 유성구에서 직접 관리 공급하는 온천수를 사용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으며,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 클럽과 비즈니스 센터 등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편의 시설도 갖췄다.

호텔인터시티는 행정공제회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저렴한 가격대에 4성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실 기준 25만4,100원인 객실을 72.8% 할인된 6만9,000원에 예약할 수 있으며, 조식과 온천이 포함된 패키지는 2인 일반실 기준 9만5,000원이다.



도시 안의 색다른 체험

유성온천지구는 온천뿐 아니라 도안 신도시 개발로 대전 내에서도 각광받는 지역이다. 유성 지역 중심에 위치한 호텔인터시티는 도심의 편의 시설과 관광 명소, 편리한 교통 환경 등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성 온천은 전국 116개 온천지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부존량과 사용량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여 종의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증기속이 검출되지 않아 피부병과 신경계 질환, 위장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 시대에는 상처 입은 학이 치료되었다는 백학(白鶴) 전설이 내려오던 지역이자 학이 울던 곳이라 하여 명학소(鳴鶴所), 혹은 학이 날아가 앉은 곳이라는 뜻의 학사리라고도 불렀다.

호텔 맞은편에는 유성온천공원이 자리하는데, 공원에서는 대전 명소로 알려진 족욕 체험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족욕탕과 수로 시설에 흐르는 물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온천수로, 지하 200m에서 끌어 올려 41~43°C를 유지한다.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근 채 녹지를 바라보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기 좋다.

도심에 위치한 호텔임에도 객실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호텔인터시티의 매력이다. 잔잔하게 흐르는 갑천과 활기찬 도심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 밤낮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창밖으로 펼쳐진다. 봄이면 유성온천 거리에는 하얀 이팝나무 꽃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순간이다. 호텔인터시티가 준비한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시설을 즐기며 특별한 휴식을 누리보자.



Mini interview

1999년 7월 1일 개관한 행정공제회 최초의 회원 복지시설 ‘호텔인터시티’는 회원과 그 가족의 휴양, 휴식을 위해 부담 없는 요금의 특급 호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만을 위한 특가 상품인 POBA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8월에는 한시적으로 회원가에서 10%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리는 호캉스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쾌적한 호텔 이용을 위해 방역 관리 및 영업 환경 개선 등 전사적으로 안전과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통한 가성비 제고, 패키지·프로모션 추진 및 상품 업그레이드 등 차별화된 전략과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호텔인터시티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호텔 임직원 모두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호텔인터시티 **장우중** 사장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사진제공 호텔인터시티

행정공제회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감사팀

회원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공제회를 위해
감사팀은 오늘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왼쪽부터) 남재현 팀장, 이진승 과장, 이경훈 차장

조직의 건전한 성장을 돕다

행정공제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기반의 윤리 가치 창출'이라는 윤리비전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받는 행정공제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감사팀'이다. 남재현 팀장, 이경훈 차장, 이진승 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지만 행정공제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다.

행정공제회 감사팀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 직무를 보좌하며,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사항 감사, 업무 관련 부정과 비위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정공제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크게 '감사 업무'와 '반부패 청렴 업무'로 나뉜다. 감사 업무에는 감사 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 감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전에 실시하는 일상 감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반부패 청렴 업무는 행정안전부 반부패 활동 평가 참여를 비롯해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과 점검, 청렴추진단 운영 및 관리, 청렴 교육과 부패 신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다.

행정공제회의 조직과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사팀의 업무 범위도 조금씩 확장되고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공제회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 파트너로서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중심의 감사,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감사 등 조직의 발전을 위한 감사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된 부서인 만큼 감사팀 구성원에게는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제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역량을 높이면서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부서와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감사팀 구성원은 현업의 문제점 개선과 적극적인 예방 감사로 행정공제회의 업무 전반에 합법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 5년 만에 수감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며 공제회의 신뢰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감사팀은 감사 업무를 통해 피감사 부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였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행정공제회 감사팀은 2021년 상반기에 6개 팀에 대한 정기 감사를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는 청렴 업무 및 감사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4개 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렴추진단 활동과 임직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공제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감사팀은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 기반의 윤리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내부 통제 환경을 구축해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Mini interview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팀의 업무를 잘 알아야 하는데, 소수 인원으로 모든 팀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늘 100% 이상의 노력과 역량을 발휘해주는 팀원들에게 매 순간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팀은 앞으로도 행정공제회의 윤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직원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감사팀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회원에게 신뢰받는 행정공제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팀 **남재현** 팀장

글 전하영 사진 장은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선점하라

행정공제회는 국내외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우량 투자 자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물류센터 자산 1건과 미국 내 물류·오피스·멀티패밀리 자산 각 1건씩을 소개한다.



영남권 식자재 유통의 중심

양산 CJ프레시웨이 물류센터

최근 물류 부동산 시장에서 저온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기존 보관형에서 유통형으로 점차 변화 중이다. 또한 유통업체 간 서비스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이 고객에게 배달되는 마지막 접점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위치한 CJ프레시웨이 물류센터는 최근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탁월한 입지와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물류센터라 할 수 있다.

CJ프레시웨이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1만9,800㎡(약 6,000평), 연면적 2만2,700㎡(약 6,870평)의 저온 물류센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물류센터(A동)와 2동의 부속 건물(B·C동)로 구성된다. 차량 93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인 'W-Navi'가 구축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IC가 근거리에 있고, 광역 교통망을 이용해 부산·울산 등 경남 주요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영남권 전역을 커버하는 거점 물류센터로서 1일 2회 이상 집·배송이 가능하다. 인근에 어곡산업단지과 제2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주변에 다수의 주거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인력 수급 또한 용이하다.

본 자산은 2019년 6월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CJ프레시웨이에서 전체 면적에 대해 마스터 리스(master lease)로 1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이며, 현재 잔여 기간이 13년 이상 남아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약 94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통해 본 자산을 영남권 전역의 식자재 유통을 담당할 자동화 물류센터로 운영 중이다. 일일 처리 물동량은 최대 400여 톤으로, 3만여 건의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다.

우량 자산 확보의 열쇠

글로벌 투자 파트너와의 조인트벤처

행정공제회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교직원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과의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우량 투자 건 확보 우위를 선점해오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한 대체 투자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은 해외 우량 부동산 투자 발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행정공제회가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투자한 자산을 섹터별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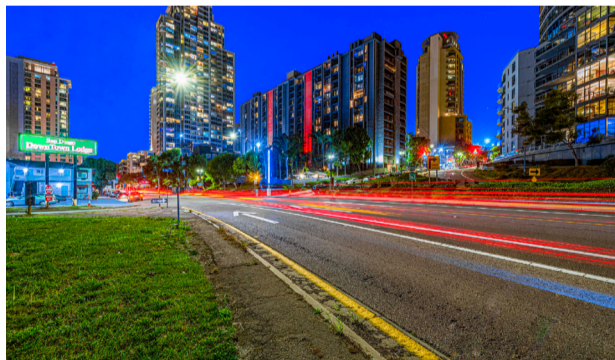
[물류 자산] North Bay Logistics Center

캘리포니아 페어필드 베이 에어리어에 소재한 임대율 100%, 5만6,400㎡(약 1만7,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로, 9m 넘는 높은 층고와 최신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근거리에 I-80 및 I-680 고속도로가 위치해 인근 배송지까지 우수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오피스 자산] Tuscany Village Center

캘리포니아주 덴버 중심 지구의 피들러스 그린(Fiddlers Green) 마켓에 위치한 2만3,960㎡(약 7,250평), 6층 규모의 오피스다. 개방감 있는 대형 아트리움 형태의 로비로 연결된 건물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너편에는 피들러 원형경기장 등이 자리한다.



[멀티패밀리 자산] AVA at Cortez Hill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의 핵심 거주 지역인 코테즈 힐(Cortez Hill)에 위치한 15층, 299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현재 임대율은 94% 수준이다. 해당 자산이 위치한 코테즈 힐은 다운타운, 샌디에이고만, 발보아(Balboa) 공원 접근성이 뛰어나 임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정리 전하영

행정공제회, 우수회원 지원금 제도 신설



행정공제회는 지급준비율 100%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올해 우수회원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우수회원 지원금 제도는 매년 말 기준, 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며 퇴직급여 납입액(원금)이 1억 원 초과인 회원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최초 가입 이후 탈퇴·재가입한 경우에는 재가입일을 최초 가입일로 계산한다. 우수회원 지원금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면 신청도 가능).

한편 행정공제회는 금년도 우수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 회원들에게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는 2020년 말 기준 지급 대상자 중 1966.6.30.(주민등록번호 기준) 이전 출생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 및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우수회원지원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회원 상담센터(1577-75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공제회, 우수회원 기념품 다양화



행정공제회가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기념품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사업은 퇴직급여금이 1억 원 이상/2억 원 이상/3억 원 이상 도달한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공제회가 각 1종의 기념품을 지급해오던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을 외부 위탁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다양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지난 6월 14일(월)부터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대상자(1억 원 이상: VIP 등급/ 2억 원 이상: Prestige 등급/ 3억 원 이상: Honor 등급)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월에 2020년 12월 말 기준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대상 회원들에게 1차 발송이 이뤄졌으며, 지난 7월 19일(월) 이후부터는 2021년 6월 말 기준 지급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등급별 기념품 신청 및 배송지 입력 등은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관련 별도 사이트인 '행정공제회 우수회원 기념품관(poba.interparkb2b.co.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위탁 업체인 (주)인터파크비즈마켓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수신한 회원만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트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주)인터파크비즈마켓 상담센터 1661-8859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공제회, 우수회원 기념품 다양화



행정공제회가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기념품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사업은 퇴직급여금이 1억 원 이상/2억 원 이상/3억 원 이상 도달한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공제회가 각 1종의 기념품을 지급해오던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을 외부 위탁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다양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지난 6월 14일(월)부터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대상자(1억 원 이상: VIP 등급/ 2억 원 이상: Prestige 등급/ 3억 원 이상: Honor 등급)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월에 2020년 12월 말 기준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대상 회원들에게 1차 발송이 이뤄졌으며, 지난 7월 19일(월) 이후부터는 2021년 6월 말 기준 지급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등급별 기념품 신청 및 배송지 입력 등은 우수회원 기념품 지급 관련 별도 사이트인 '행정공제회 우수회원 기념품관(poba.interpark2b.co.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위탁 업체인 (주)인터파크비즈마켓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수신한 회원만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트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주)인터파크비즈마켓 상담센터 1661-8859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 10일 살아보기’ 이벤트 당첨 회원 총 81명 선정



행정공제회가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한 ‘제주 10일 살아보기’ 이벤트에서 총 14,964명의 응모자 가운데 최종 81명의 당첨자를 선발했다. 185:1이라는 역대 행사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당첨 회원들에게는 열흘간 켄싱턴리조트 제주(서귀포, 한림) 숙박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한 현장 방역 지원 및 기타 격무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제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공제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향한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차년도에 더 많은 회원이 다채로운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회원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퀴즈를 풀면 상품권이 쏟아집니다!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POBA LIFE>



<POBA LIFE> 12호

독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Q. 부산시 소재 창업 기업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해 판로개척을 돕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산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은?

A. ① 크리에이티브샵

당첨자

이종* (2154) 하상* (6363) 신아* (0609) 고주* (3151) 정규* (4512) 김대* (4104)

이희* (4203) 임혜* (2407) 이미* (0235) 최길* (7097) 강희* (8135) 김예* (0110)

박남* (7097) 권은* (8055) 박영* (1484) 강희* (6748) 조영* (2216) 김은* (5534)

박효* (0563) 권정* (5280)

독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자 퀴즈 당첨 선물은 퀴즈 참여 시 기입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POBA LIFE> 13호

애독자를 위한 독자 QUIZ!

Q. 대구시는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신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한 결과 산업통상부 주관의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2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에 들어갈 단어는?

A. ① 지방투자촉축 ② 지방투자촉진 ③ 지방고용창출

웹진 메인 페이지 상단 '독자 퀴즈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퀴즈 이벤트 상품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